

2021. 1. 6

주요 투자은행의 세계경제 및 주요국 성장률 전망 (2020.12월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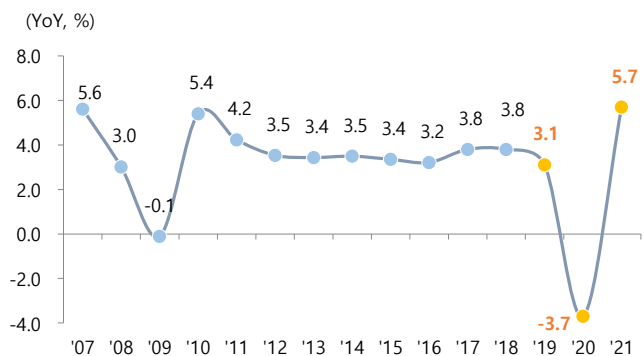
홍서희 | 책임연구원(3705-6153)

- **세계(-):** 20.4Q~21.1Q 중국을 제외한 주요국 경기 회복세 부진 지속 전망. 21.2분기 백신 보급에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하반기에는 글로벌 경기의 동조적(synchronized) 회복을 기대(Nomura)
 - **미국(+0.4%p ↑):** \$9천억 규모 추가 부양책의 성장률 부양 효과는 '21년 +2%p, '22년 +1%p(JPM). 현금지급, 실업수당 확대, 중소기업 지원 등이 1분기 가처분소득에 큰 폭 기여(GS)
 - **유로존(-0.1%p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등에서 봉쇄 조치를 강화함에 따라 21.1분기 성장률 전망치 하향. 중장기적으로는 백신 보급, EU회복기금 집행, 브렉시트 협상 타결 등이 경기 회복을 지지(Barclays)
 - **중국(-):** 기저효과 등으로 1분기 성장률(yoy)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이후 4분기까지 점진적 둔화 예상. 미중분쟁 악화, 부동산시장 조정 가능성 등이 리스크(Citi)
 - **일본(-):** 바이러스 재확산에 따른 소비둔화 불구, 수출 호전, 재정·통화 부양책으로 성장 회복 지속을 예상하며 도쿄올림픽(7/23~8/8일)이 대내 민간수요 회복을 견인할 가능성(Barclays). 주요 리스크 요인은 안전자산 선호 지속에 따른 엔화 절상 압력(Nomura)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기관명	2020f	2021f	2022f
Barclays	-3.6	5.5	4.4
BNP Paribas	-4.0	5.6	4
BoA-ML	-3.6	5.4	-
Citi	-3.7	5.5	3.7
Goldman Sachs	-3.6	6.4	4.5
JP Morgan	-3.7	6.1	4.3
Nomura	-3.6	5.7	4
Societe Generale	-3.9	5.1	3.6
UBS	-3.5	6.3	5
평균	-3.7(0.1)	5.7(0)	4.2(0)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



* 전년대비, 구매력평가(PPP) 기준. 붉은색, 파란색은 각각 전월 전망치대비 상승, 하락을 의미 괄호는 전월 전망치대비 변화분(%p)



KCIF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

	분기별				2020 ^f	2021 ^f	2022 ^f
	20.4Q	21.1Q	21.2Q	21.3Q			
Barclays	5.0	0.0	5.0	6.0	-3.5	4.1	3.5
BNP Paribas	-	-	-	-	-3.6	3.7	3.2
BoA-ML	5.0	1.0	7.0	5.0	-3.5	4.6	3
Citi	6.3	5.3	5.1	2.7	-3.4	5.1	-
Goldman Sachs	5.0	5.0	8.5	5.0	-3.4	5.9	3.7
JP Morgan	5.0	0.5	5.0	6.0	-3.4	4.2	3.2
Nomura	5.8	0.5	1.6	2.9	-3.4	3.2	3.5
Societe Generale	4.5	3.5	2.9	2.7	-3.5	3.9	2.6
UBS	4.4	3.5	7.1	3.5	-3.5	5.0	4.3
평균	5.1(1.0)	2.4(0.6)	5.3(0.5)	4.2(-0.5)	-3.5(0.1)	4.4(0.4)	3.4(0)

* 분기별 전망은 전기대비 연율, 연도별 전망은 전년대비 기준. 붉은색, 파란색은 전월 전망치대비 상승, 하락을 의미. 괄호는 전월 전망치대비 변화분(%p)

〈유로존 경제성장률 전망〉

	분기별				2020 ^f	2021 ^f	2022 ^f
	20.4Q	21.1Q	21.2Q	21.3Q			
Barclays	-6.9	0.2	5.0	11.5	-7.0	4.1	5
BNP Paribas	-	-	-	-	-7.5	5.6	3.9
BoA-ML	-5.1	2.6	3.3	5.4	-7.0	3.9	2.7
Citi	-9.8	0.9	4.4	11.2	-7.3	3.6	4.3
Goldman Sachs	-8.1	3.6	12.8	7.1	-7.2	5.5	4
JP Morgan	-9.5	2.0	10.0	9.0	-7.2	4.6	4.4
Nomura	-9.5	8.3	10.3	3.9	-7.2	5.4	3.0
Societe Generale	-10.7	11.6	2.7	2.5	-7.3	4.3	2.2
UBS	-11.4	9.8	10.4	7.8	-7.4	6.2	5.0
평균	-8.9(-2.9)	4.9(1.1)	7.4(0.1)	7.3(0.8)	-7.2(0)	4.8(-0.1)	3.8(0)

* 분기별 전망은 전기대비 연율, 연도별 전망은 전년대비 기준. 분기별 평균은 전기대비 연율의 산술평균 집계. 붉은색, 파란색은 전월 전망치대비 상승, 하락을 의미. 괄호는 전월 전망치대비 변화분(%p)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

	분기별				2020 ^f	2021 ^f	2022 ^f
	20.4Q	21.1Q	21.2Q	21.3Q			
Barclays	6.5	19.6	7.7	5.6	2.3	8.4	5.5
BNP Paribas	-	-	-	-	2.0	8.6	5.3
BoA-ML	(1.8)	(18.0)	(12.0)	(9.9)	1.8	8.5	5.6
Citi	5.9	16.0	8.0	6.0	2.1	8.2	5.5
Goldman Sachs	6.8	17.7	6.2	5.7	2.4	8	5.7
JP Morgan	(12.8)	(6.8)	(4.5)	(5.5)	2.1	9.2	5.5
Nomura	5.7	19.0	7.9	6.4	2.1	9.0	5.3
Societe Generale	5.5	18.0	7.0	5.0	2.0	7.8	5
UBS	5.4	18.3	7.0	5.3	2.1	8.2	6
평균	6(0.3)	18.1(0.3)	7.3(0.1)	5.7(0.1)	2.1(0.1)	8.4(0)	5.5(0)

* 분기별 전망은 전년동기대비, ()는 전기대비 연율. 평균은 전기비연율 값을 제외하고 계산. 연도별 전망은 전년대비 기준. 분기별 평균은 전년동기대비의 산술평균 집계. 붉은색, 파란색은 전월 전망치대비 상승, 하락을 의미. 괄호는 전월 전망치대비 변화분(%p)

〈일본 경제성장률 전망〉

	분기별				2020 ^f	2021 ^f	2022 ^f
	20.4Q	21.1Q	21.2Q	21.3Q			
Barclays	2.8	2.9	4.6	5.6	-5.3	3.4	2.5
BNP Paribas	-	-	-	-	-5.4	1.5	1.8
BoA-ML	4.2	-1.5	7.8	5.0	-5.2	3.0	2.7
Citi	5.6	-1.0	3.5	1.9	-5.1	2.0	2.3
Goldman Sachs	3.9	3.5	3.8	4.6	-5.3	3.6	2.1
JP Morgan	6.0	0.0	5.5	3.5	-5.2	3.1	1.9
Nomura	7.4	0.2	1.7	2.6	-5.0	2.7	2.7
Societe Generale	11.0	2.9	3.9	4.9	-4.9	4.4	1.9
UBS	3.0	0.6	7.6	4.4	-5.3	3.2	2.6
평균	5.5(0.3)	1(-1.1)	4.8(0.6)	4.1(4.1)	-5.2(0.1)	3(0)	2.3(0)

* 분기별 전망은 전기대비 연율, 연도별 전망은 전년대비 기준. 붉은색, 파란색은 전월 전망치대비 상승, 하락을 의미. 괄호는 전월 전망치대비 변화분(%p)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보고서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국제금융센터는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53 혹은 shhong@kcif.or.kr, 홈페이지: www.kcif.or.kr